

경부 미주신경에 발생한 Neurilemmom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박 정 수 · 민 진 식

Neurilemmoma는 신경을 싸고 있는 Schwann's cell sheath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nerve sheath가 없는 optic nerve나 olfactory nerve를 제외하고 모든 신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체에서 발견되는 전체 neurilemmoma중 25~45%가 두경부에서 발견되나 경부 미주신경의 neurilemmoma는 매우 희귀하여 1988년까지 영문문헌상 약 80에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다. 임상적으로 경부종괴가 주 증상이며 때로는 애성, 종괴촉지시 기침 혹은 방사통, parapharyngeal space의 종괴성장으로 인한 연하곤란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는 종괴의 완전적 출과 미주신경의 기능을 보존시키는 것이 주요목표로 되어있다.

저자들은 최근 5년간 경부미주신경에 발생한 neurilemmoma 4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진단시 평균연령은 36.3세(최연소 22세, 최고령 50세)이었고 성별로는 남자 1예, 여자 3예이었다. 내원시 주소는 전예가 무통성 경부종괴이었으며, 종괴의 크기는 직경 4.0cm에서 9.0cm(평균 6.5cm)까지 다양하였다. 전예에서 종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으나, 1예에서 parapharyngeal space의 거대종괴 때문에 다소간의 연하곤란이 있었다. 2예에서는 종괴 촉지시 기침이 유발됨을 호소하였다. 수술은 경부 횡절개로 흉쇄유돌근을 제치고 총경동맥과 내경정맥을 종괴의 상하부위가 완전히 노출되도록 박리한 후 종괴의 capsule을 미주신경의 주행방향에 따라 절개하여 enucleation을 하였다. Enucleation시 종괴가 유착되어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미주신경의 continuity는 유지되도록 하였다. 수술직후 2예에서 애성을 호소하였다. 추적은 최단 1개월, 최장 60개월(평균 24.5개월)하였는데 1예에서 계속적인 애성을 호소하는것 외에는 전예가 재발의 증상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아에서의 경부 선천성 기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임 국 배 · 윤 정 한
제갈 영 증 · 김 신 곤

소아의 선천성 기형 및 결손으로 인한 소아외과 질환은 대부분이 외과적 치료로 치유되는데, 경부 선천성 기형은 종괴, 동, 루, 염증등으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술적 수기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저자는 1979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10년동안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받은 15세이하의 환자 53례의 경부 선천성 기형에 관하여 임상적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1) 총 53례 중 남자가 25례(47.2%) 여자가 28례(52.8%)로 남 여비는 1 : 1.12였다.

연령별로는 사춘기가 47.2%로 가장 많았다.

2) 선천성 경부 기형의 빈도순으로 보면 갑상설관낭 및 루, 새구낭 및 루, 경부낭수송 순으로 전체 경부 기형의 83%를 차지하였다.

3) 수술후 합병증은 2례(3.8%)이었고 재발율은 5.7%를 보였다.

4) 본 대상중 갑상설관낭과 새구낭의 동반기형이 1례 있었고 동반질환으로는 선천성 심장기형이 1례 있었다.

방사성 이리디움을 이용한 두경부암의 방사선 근접치료

원자력병원 치료방사선과

류성열 · 고경환 · 조철구
박우윤 · 박영환

방사성이리디움 리본에 의한 두경부의 각종 악성종

양의 저선량률법에 의한 근접조사 방사선 치료는 종양선량을 증가시키며 주위장기의 방사선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다. 원자력병원에서는 1986년 10월부터 1989년 8월까지 두경부, 뇌, 유방, 골반회음부 등 총 76례의 각종 암에서 이리디움 근접조사 치료를 시행하였던 바, 그 중 두경부종양 40례에서 시행한 경험을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대상환자는 치료시작시 부터 계획에 의한 적정선량의 외부조사후 근접치료를 근치 목적으로 시술을 한 예와, 외부조사 단독요법의 치료 후에도 잔존하는 잔류병소에 대한 추가 조사 목적으로, 또는 과거 방사선 치료후 재발례에서 고식목적으로 시술을 한 예로 구분하여 선택하였고 결과를 완전관해 및 현저히 임상증상이 완화된 부분관해를 얻은 반응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총 40명의 환자의 자입치료 부위 별로는 구강저 2례, 설 8례, 구협부 1례, 경부임파절 15례였고 강내치료를 한 비인두암이 14례 있었다. 이 중 계획적시술 예가 16례, 추가적시술 예가 11례, 고식적시술 예가 13례였다.

시술의 결과, 구강저 자입치료 및 비인두 강내치료를 반응율이 100%였으며 시술이 한결 복잡한 설암의 경우와 외부조사 치료에 실패한 예에서 시술된 경부전이암의 경우에는 반응율이 다소 떨어졌다. 상기 40례의 총 반응율은 40례 중 33례(82.5%)였고 그중 완전관해는 25례(82.5%)였으며 그중 국소재발을 나타낸 예는 1례로 국소 치유율이 25례 중 24례(96.0%)였고 인접입파선 전이 및 원격전이 예가 각각 5례와 3례로, 치유되어 무병상태로 있는 예가 25례 중 18례(72.0%)였다.

— 141 —

The Result of Radiotherapy in Neck Node Metastasis from Unknown Primary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m Il Park, Jae Sung Kim

From February 1980 to April 1986, 26 patients with neck node metastasis from unknown primary were treated with radiotherapy in the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mong these, 3 patients who had incomplete treatment were excluded, So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undertaken of 23 patients who had complete treatment with radiotherapy and/or surgery plus chemotherapy.

The 3 year actuarial survival rate in patients with N2 stage and N3 stage were 43% and 13%, respectively. Prognostic fact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tage and histology. Stage seemed to b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but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this study and histology was indifferent to prognosis.

— 15 —

Radiation Therapy of Early Glottic Carcinoma

*Department of Therapeutic Radiology and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 Chan Ahn, M.D., Cham Il Park, M.D., and *Kwang Hyun Kim, M.D.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done of 48 patients with early glottic carcinoma(stage I and II), who were tre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1979 to August, 1984. The median follow-up period was 69 months(range : 34-126 months). 31 patients(64.6%) were diagnosed as having stage I disease and 17 patients(35.4%) having stage II. 4 patients(8.3%) were associated with second primary cancers in other organs.

All were treated with Co⁶⁰ teletherapy unit, and the median tumor dose was 6,900 cGy(range : 5,975-7,600 cGy). The actuarial 5 year survival rates for stage I and II lesions were 80.5% and 76.5%, respectively. There were 12 failures(25%) in the primary sites, and one(2.1%) in the distant site. Surgical attempts